

Korea Quant

3월 전망: 벚꽃을 기다리며

PER 부담은 시간이 해결할 것

최근 미국과 한국 시장의 특징은,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낮아지고 채권의 기대수익률은 높아졌다는 점이다. 시장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PER 하향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PS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크지 않았던 점이 원인이다.

EPS 하향 조정이 둔화되며 PER 부담은 완화될 것이다. 현재 EPS는 2023년보다 2024년 EPS가 높으며, 12개월 선행 EPS는 시간이 지날수록 2024년 EPS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EPS 하향 조정이 멈춘다면, 가중치 변화로 12개월 선행 EPS는 상승하게 된다. 1분기 실적은 계절적으로 긍정적인 특성이 있으며, 어닝 시즌을 앞두고 1분기 실적이 조정될 것이다. 시기 상으로는 벚꽃이 개화하는 3월 말이 그 시점이 될 것이다.

쉬어가는 외국인

1월에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수급은 2월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달러화 강세로 인해, 이머징 아시아 국가 전반적 외국인 매수 둔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외국인 지분율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위치해있고,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인 미국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로 돌아설 것이다.

소재와 IT/커뮤니케이션의 힘 겨루기

2월 제조업 지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욱 긍정적이었다. 미국의 모멘텀보다 중국의 모멘텀이 더 강한 만큼, 3월에는 소재를 중심으로 한 시클리컬 업종의 성과가 긍정적일 것이다. 반면 성장주의 경우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익의 하향 조정이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소재 등 시클리컬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이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IT나 커뮤니케이션 등의 외국인 지분율이 더욱 낮다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 매수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익 하향 조정의 둔화로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 역시 점차 완화될 것이다. 3월에는 소재 중심의 시클리컬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연말까지의 긴 시각으로는 IT와 커뮤니케이션 같은 성장주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목차

- I. 3월 전망: 벚꽃을 기다리며..... 1
 - 1. PER 부담은 시간이 해결할 것
 - 2. 수급: 쉬어가는 외국인
 - 3. 소재와 IT/커뮤니케이션의 힘 겨루기
- II. 글로벌 자금 흐름 동향..... 11
 - 1. 잠깐 쉬어가는 시간
- III. 월간 중시 주변 데이터 동향..... 15
 - 1. 월간 한국 주식시장 리뷰
 - 2. 월간 한국 기업 실적 동향
 - 3. 밸류에이션 동향
 - 4. 월간 상장/보호예수 해제 일정
 - 5. 상장 기업 통계

Quant

염동찬

dongchan@koreainvestment.com

Quant RA

조수현

chosuhen@koreainvestment.com

Quant RA

신채림

clshin@koreainvestment.com

Full report 는 한국투자증권 액티브솔루션영업부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